

## 교육감 선거 '대혼전' ... 40% 부동표 당락 좌우

광주, '3선 도전' 1강2약... 학력저하 놓고 설전  
전남, 예측불허 '접전' ... 동부권 표심 최대 변수  
오늘 사전투표... 각 후보 지지층 중심 투표 독려

6·13 지방선거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선거는 부동표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당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초반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받았으나, 후보간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후보 지지율은 선거초반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 지지후보가 없거나 무응답한 부동표가 선거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 캠프들은 8일과 9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지층을 중심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1강 2약'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장휘국 교육감에 맞서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과 최영태 광주혁신교육감 시민경선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

단일후보가 추격하고 있다. 선거는 장 후보의 독주로 전망했으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두 후보가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세 후보들은 3선 도전, 학력저하, 정립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정선 후보는 남은 선거운동기간 학력저하 등 광주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내 아이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혁신교육감"을 슬로건으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광주형 교육모델을 구상했다"며 "이를 위해 광주시민교육 지원청 신설, 학업·장의성·인성 교육을 강화한 실력 3UP, 교육공공성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태 후보는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

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는 "민주·평화·인권 도시 광주를 체계적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광주형 새싹학교 운영, 민주·평화·인권도시 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후보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지층을 결집시켜 대세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 후보 측은 "3선 출마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권자들에게 3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를 호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 8년 광주교육이 추진한 혁신교육과 유사하고, 정부의 교육개혁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책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석규·오인성·장석웅 후보가 나선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혼전을 거듭하면서 예측불허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바쁜 농번기철과 특정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부동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면에 계속>/황애란 기자



“사전투표 하세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3층 옹골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과 공무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광주·전남 사전투표·마지막 주말 총력전

“지역 표심 잡아라” 여야 지도부 유세전 올인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실시되는 가운데 여야는 물론 무소속 후보들도 사전투표와 마지막 주말 유세에 올인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을 높여려는 목표는 같지만, 각 정당과 후보캠프마다 이유는 제각각이다.

특히 여당은 핵심 지지층인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한국당은 '북풍저단'을,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은 일당 독점만은 막아달라며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7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 광주 지역 95개, 전남 297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필요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

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연 관심사는 사전투표율이다.

광주·전남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평균 사전투표율은 26.06%로 광주와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33.67%, 34.04%였으며, 세종(34.48%) 다음으로 높았다.

또 2016년 4·13총선 때도 전남은 18.8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광주는 15.75%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대선 때보다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공 지지율과 지방선거 하루 전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려 지방선거는 더욱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높여 자신들의 득표를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유지와 냉전종식, 평화통일 무드조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적극 지지층이 사전투표를 견인, 텃밭에서 최다 득표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 독점구조를 깨고 지방정부와 지역정가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다당제 지지층이 사전투표를 통해 야권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각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주말 민심잡이에도 총력을 다한다. /조기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전남대-평양과기대 '업무협약'

남북교류 물꼬... 공동연구, 교수·학생교류, 학술자료 공유

북미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대학교와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7일 남북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이날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과 두 대학간 '공동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서'에 상호 서명하고, 한반도와 민족공동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남북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에 임할 것을 협약했다.

협력분야는 ▲두 대학간 공동연구 ▲교수·연구인력 교류 ▲학생교류 ▲학술·교육 자료와 정보 교류 ▲공동국제수행시 기술·자재 지원 등이다.

특히 두 대학이 상호협력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협력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해 제반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해 선연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남북교류는 무엇보다도 사람교류, 교육교류가 중심이 돼야한다"며 "전남대는 평화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평

양과기대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립대학교로서 해야 할 몫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유택 평양과기대 총장은 "남북미 정치상황이 잘 풀리고 있어 전남대학교와의 학술교류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남대로부터 농생명공학, 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정병석 전남대 총장과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 총장이 7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에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의한수! 세기의대결!! 이세돌 기념관에서...

## 제6회 신안천일염 전국대학생바둑대회

참가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칠수 있기를 바라며 좋은 추억을 간직하시고 승단과 승급의 기쁨을 만끽하세요!!

- ▶ 일시 : 2018년 7월 20일(금) ~ 21일(토)
- ▶ 장소 : 신안군 비금 이세돌 바둑기념관
- ▶ 참가자격 : 전국대학재학생
- ▶ 참가부문 : 최강부(5단이상), 유단자부(1~4단), 고급부(1~3급), 중급부(3급이하)